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의 흐름을 17세기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趙珖 (韓國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

1. 서론

세계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17세기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러 지구에는 태양의 흑점 폭발로 인해 소빙기를 맞아 섭씨 약 2도 정도가 하강되는 이상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이 이상저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서는 기근이나 전염병 등 각종 災異가 일어났고, 전쟁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일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특별히 ‘17세기 위기론’으로 부르고 있다.

17세기 위기론은 유럽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주장되기 시작하여, 아시아를 포함한 전 지구적 현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17세기 위기론이 동아시아사의 전개 과정에서도 반드시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의 역사가 어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선과 명,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서로 ‘조공책봉체제’라는 국제질서 하에서 관계를 맺었다. 세 나라는 14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선언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조선의 통신사를 접견한 후, 조선 국왕에게 명 침략에 협조를 요구했다.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전까지의 국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괴적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592년 4월, 그는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은 명에 구원을 요청했고, 명은 구원군을 파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 이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강화교섭에 임했다. 명은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에 책봉했다. 히데요시는 ‘책봉’은 받아들였으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조선으로부터 ‘전리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재침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은 그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여진족 중 한 부족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後金)을 건국했고, 이후 황제를 자칭하며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었다. 여진족은 조선을 두 차례 침략하는 호란(胡亂)이 일어났다.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조선과 후금은 군신(君臣) 관계를 맺었고, 후금은 마침내 멸망한 명을 대신하여 중원의 지배자가 되었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이 시기 明清交替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 德川幕府가 출현했다. 조선의 경우에도 국가를 再造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의 역사는 격동치고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동아시아 세계의 해체’ ‘중국적 세계질서의 해체’로 규정하거나, ‘17세기 위기론’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과연 미려한 시각들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2. ‘전란의 시대’ , ‘양란(兩亂)’ 과 ‘16-17세기’

한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15세기와 16세기가 조선 전기로, 17세기에서 19세기를 조선 후기로 보는 것이다. 조선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점은 일본의 조선 침략인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여진족의 침략인 정묘호란·병자호란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과 여진에 의해 각기 단행된 조선침략을 양란(兩亂)으로 규정하여 그 시대구분을 시도한다.

조선사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양란 이전을 조선이 발전하던 시기로, 양란 이후는 조선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양란의 피해가 실상보다 과장되게 그려지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 피해를 극복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조선은 근대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내재적 발전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란이라는 명칭이 시대구분을 위해 과연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사이에는 30년 가까운 시차가 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은 그 형태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난다. 즉, 왜란은 10만 이상의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전역을 유린했고, 이에 맞서서 조선군과 명의 대군이 맞붙은 ‘전면전(全面戰)’이었다. 반면에, 호란은 단 시간 내에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고, 명과의 전쟁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종의 ‘제한전(制限戰)’이었다. 그러나 ‘양란’이라는 명칭을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 까닭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임진왜란과 사상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호란을 동시에 지칭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양난이라는 명칭이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통칭되기는 하지만, 조선사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점은 대개 임진왜란이다. 이는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획기성을 부여했던 결과였다. 예를 들면, 조선이 왜란으로 인해 당분간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결과를 보면, 기존에 거론되었던 조선의 피해상에는 실제로 과장된 면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왜란이 종전된 직후에 단행되었던 토지조사 의 數値는 전란 이후 ‘여민휴식(與民休息)’이라는 정책의 결과로 과소 계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할 때, 종래의 임진왜란 연구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국사의 연구과정에서 17세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당대 정치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대표되는 봉당체제의 성립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봉당정치의 확립은 조선왕조적 통치체제의 완비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적 위기를 정치·사상적으로 극복하려 했던 움직임을 유형화한 ‘국가 재조론’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 ‘17세기 위기론’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연동해서 조선시대사의 연구에 ‘소빙기론’ (小氷期論)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한반도도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후 현상인 소빙기를 피할 수는 없었음을 전제하고 제시되었다. 사실 당시 한반도에도 기근과 전염병이 성행했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방면에 걸쳐 병행되고 있었다.

한국사에 있어서 17세기에 주목되는 변화상 중 하나는 ‘가족제도’이다. 17세기 초부터 장자 상속권의 강화와 양반가문에 있어서 4대봉사의 일반화, 입양의 성행, 적장자 중심의 친족질서 확립이 이루어져 갔다. 또한 결혼제도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의 집(처가)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여성의 시집살이가 일반화 되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등이 양반 지배층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역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임과 동시에 그 변화를 추동하는 기제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한편 종래의 시대구분론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16세기와 17세기의 동질성에 주목한 견해도 있다. 이른바 ‘조선중기론’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사회구조로서 양반이 조선의 지배층으로 확고히 성립하는 모습에 주목한 연구이다.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국면에서 양반들은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따라서 전후복구 과정에서의 주도권은 양반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에 의한 개혁론은 향약 보급,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행과 같은 예치 질서의 확립과 함께 ‘여민휴식(與民休息)’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개혁론은 인조반정 이후 잠시 국가주도개혁론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소빙기’가 오면서 다시 자율성 확대정책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3. 사상적 변화와 위기 극복

위기에 맞선 조선은 여러 방면에서 복구론을 개발했다. 17세기 이래 조선의 사상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예론의 발전이었다. 당시의 예론은 관혼상제 중심의 家禮에 국한되지만은 않았다. 예학자들은 禮의 범위를 국가의 제도를 논하는 데에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예론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강화하는 기능을 발휘했다.

성리학을 지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관료들은 17세기 대동법 시행, 18세기 균역법 시행 등 국가제도의 개혁과정에서도 대소의 변통론을 제시하였다. 대변통론은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뛰어넘는 근본적 변통 내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소변통론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이 제시하는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자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이 성리학은 17세기 이래 더욱 강화된 통치이념으로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조선사회의 각 방면에서는 변화의 양상이 전개되었고, 조선의 사상계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실학사상의 출현으로 대

표된다. 새로운 조류의 사상인 실학사상은 조선후기 17세기 이후의 사회에서 나타난 현실 개혁적 사유형태를 지칭한다. 실학사상은 성리학을 정면으로 배격하지는 않았으나, 종전의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朱子唯一主義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先秦時代의 原初儒學에 입각한 變通論을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했던 변통론은 대체적으로 大變通論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실학사상은 17세기 이래 조선 사회에서 전개된 사회경제적 변동 및 문화변동의 산물로서, 성리학을 대체하거나 개혁하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등장했다.

실학의 발생 배경으로는 먼저 내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농촌사회의 변동,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이 요인이 되었고, 무엇보다 성리학을 본위로 한 조선 사상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17세기에 이르러 전쟁 이후 드러나게 된 여러 부조리에 대해 성리학적 경세론은 합리적인 수습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조선의 사상계는 성리학의 학풍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주자성리학을 유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입각한 새로운 개혁적 경세론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실학발생의 배경에서 외래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은 17세기 전반 병자호란에서 참패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전개했다. 오랑캐인 청이 명을 대신하여 중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조선의 사상계는 전통적인 正統論과 華夷論에 대한 재검토 작업 과정에서 中華繼承意識 내지 朝鮮中心主義가 일어나기도 했다.

조선중심주의적 사고는 실학자들의 자아 각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도 정통론과 화이론을 재검토하였고, 이는 실학자 자신의 사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실학자들의 개혁론은 선진유학

사상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론, 권력구조 개편론, 관료제도 개혁론, 과거제도 개혁론, 군사제도 개혁론, 토지제도 개혁론, 상공업 진흥론, 사회 개혁론 등 다방면에 미쳤다. 그리고 유학사상에 대한 연구나 대외인식과 역사관에 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4. 17세기 조선의 외교

1598년 11월, 일본군은 조선에서 모두 물러갔다. 1600년 9월 명군도 조선에서 철수했다. 조선은 내적인 재건과 함께 외적인 관계도 새로이 정립해야 했다. 침략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이 실권을 잡고 도요토미 정권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있었다. 정권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로서는 ‘외국’의 정권 인정이 필요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외교와 사절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불과 몇 년 전의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외교 요청, 그러나 정권을 잡고 있는 이는 임진왜란 때에 침략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었다. 조선은 수년 간 고민했고, 또 일본의 정권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1607년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명은 성장한 북방 여진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명은 임진왜란 시기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워 조선에 군사적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조선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 정권과 인조 정권 모두 같은 문제로 고뇌했다. 급성장한 후금-청은 조선을 침략하여 먼저 형제관계를 맺었고, 이어서 병자호란을 일으켜 군신관계까지 맺게 되었다. 명과 조선의 관계는 강제로 단절되었다. 1644년 청이 북경에 진입하여 중원의 지배자가 되자, 조선은 이 변화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은 비록 취소하기는 했으나 청과 전쟁을 위해 원군 파견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조선에서도 趙綱과 같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이가 있었다. 시대는 변화했고, 내적인 대응 방식과 외적인 대응은 연동되어야만 했다. 병자호란 중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의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에서 ‘통신사(通信使)’로 변경된 바 있었다.

‘위기의 시대’ 라는 17세기. 이 시기를 각 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는 조선의 양상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선의 대응 방식이 오로지 내적인 요인에만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다. 변화와 이를 추동한 관계, 그리고 그것이 각 국의 내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17세기 조선에서는 전쟁이라는 위기 이후 강력한 복구론이 제기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사상사적으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적 사회개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활발한 개혁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실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고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이끌며 장기간의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다양한 대응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는 조선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그리하여 17세기는 위기의 시대임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시기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조선의 17세기사는 서유럽의 역사서술에서 드러나는 17세기

위기론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17세기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연구해야 할 많은 분야가 발견된다. 그리고 역사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17세기사의 개별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사와 중국사의 연구과정에서도 역시 자국사와 관계사의 시각을 모두 동원하여 17세기라는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역사의 진실에 좀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